

인터넷에서 누릴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최태연 (기획연 실행위원, 천안대 기독교학부 교수)

이미 그 열기가 식었지만 2005년에 들어와 인터넷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두 번이나 일어났다. 하나는 이른바 <외국인 강사 한국여성 비하사건>이고 또 하나는 <연예인 X파일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은 인터넷이 없다면 애초부터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 올려진 글이 네티즌에 의해 인터넷의 각종 게시판과 카페 등으로 확산되면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한국여성을 비하하는 외국인 강사의 글에 대해서는 네티즌들의 분노가 들끓었던 반면에, 평소 선망의 대상이었던 연예인에 대한 등급매기기와 사생활 폭로에 대해서는 네티즌들의 호기심이 폭발했다. 이 두 사건은 인터넷의 위력과 문제를 동시에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읽어야 할 중요한 문화현상이다.

잉글리시 스펙트럼

지난 1월 초 외국인 구직 사이트 '잉글리시 스펙트럼'에 게재된 한 편의 글이 인터넷에 확산됐다. 그 글의 내용은 "영어를 배우려는 한국 여성에게 왕 대접을 받고 있고, 한국에서는 여자랑 자기 쉽다"는 것이었다. 이 글 외에도 한국여성을 유혹해 잠자리를 같이하는 방법 등이 담긴 글이 하루 평균 5~6건씩 같은 사이트에 올라왔다고 한다. 성난 네티즌들은 이 글을 부지런히 다른 사이트 게시판으로 퍼 날랐고 삽시간에 험악한 인터넷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 결과 온라인에서 '외국인 강사 추방운동'까지 벌어졌다.

사건은 여기서 종결된 것이 아니었다. 네티즌들은 흥대 앞에 있는 클럽 '메리제인(Mary Jane)'의 미니 홈페이지에서 작년 12월 초에 올려진 사진들을 발견했다. 이 사진들에는 메리제인의 파티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남녀가 어울려서 '춤추고 노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몇몇 네티즌이 이 사진들을 문제의 글과 연결시키자, 분기탱천한 네티즌들의 답 글이 인터넷 공간을 가득 메웠다. 특이한 점은 네티즌들의 비난의 화살이 사진 속의 외국남성보다는, 그들과 함께 있던 한국여성들을 향했다는 점이다. 이 한국 여성들에게 심지어 '창녀'나 '걸레'나 하는 욕설이 쏟아졌고 "신원을 색출해 망신을 주자"는 주장에 따라 이들의 이메일과 전화번호, 직장주소까지 인터넷에 공개되었다. 그 때로부터 이 여성들은 온갖 비난 메일과 협박전화에 시달렸고 마침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취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생겼다고 한다.

이 사건을 통해 한국여성들을 비하하는 일부 외국인 강사들의 잘못된 성 의식과 인격적인 자질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그러나 동시에 드러난 것은 외국 남성들과 파티를 열었거나 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한국여성들을 비하하는 무분별한 네티즌의 모습이었다.

연예인 엑스파일

이어서 한국 대중문화계를 충격에 빠트린 사건은 연예인 X파일사건이었다. 연예인 X파일이란 국내 최대의 광고제작사 <제일기획>이 <동서리서치>와 함께 연예인 99명의 연기력 등에 대한 평가와 사생활에 대한 소문을 정리한 목록이다. 이 목록이 밝혀지지 않은 어떤 경로를 통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공개된 것이다. 목록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이 열광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

대중의 스타인 연예인들의 연기력이나 사생활에 대중들이 호기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 때

문에 그들에 대한 소문이나 근황이 스포츠 신문이나 여성잡지에 자주 오르내린다. 방송국이나 광고사가 스타의 성장가능성이나 연기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비밀리에 X파일을 만든 광고제작사의 관리 소홀로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만천하에 유포되었다는 데 있다. 이런 종류의 정보가 일단 인터넷에 올라오면 그 진위를 가릴 사이도 없이 빠르게 확산되어 당사자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아무리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대중적인 공공성을 띠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격과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나의 인격과 자유가 소중하다면, 연예인의 인격과 자유 또한 소중한 것이다.

인터넷의 두 얼굴: 자유와 권력

이 시대의 총아(寵兒) 인터넷은 인류에게 아직 가보지 못했던 미래를 열고 있다. 인터넷은 시공간의 벽을 넘어 접속된 사람에게 거의 무제한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자유 공간'이다. 누구나 이 공간에 참여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고 자신의 의사를 손쉽게 표현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의 놀라운 능력은 지구상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실시간성에서 잘 나타난다. 인터넷 전도사로 불리는 MIT의 네그로폰테나 MS의 빌 게이츠 같은 인터넷 만능주의자들은 인터넷에 의해 통합된 지구촌의 미래에 대해 장밋빛 청사진을 내어 놓고 있다. 2002년부터 소개된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컴퓨터를 우리 주변에 무수히 설치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서비스를 받는 환경으로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유비쿼터스는 인터넷 열광주의자들의 꿈을 이루어 줄 새로운 도구이다.

주의할 점은 인터넷이 실시간성과 익명성을 이용해 빠르게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를 움직이는 막강한 권력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인터넷은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도 있지만,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격을 파괴할 수도 있는 권력수단이다. 무한한 자유를 제공해 준 미디어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미디어로 돌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두 사건은 무분별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인터넷에 의해 오히려 개인의 자유가 억압하거나 파괴되는 사례를 보여준다. 인터넷의 두 속성인 자유와 권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잃어버리면, 권력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다. 인터넷 권력이 일방적으로 승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자아정체성의 혼란,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 지적 재산권 침해, 정보의 편향적인 상업화와 불건전 정보 유통, 인터넷 중독증의 피해도 심각하다.

표현의 자유, 그러나 . . .

어떻게 하면 인터넷을 다스려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미디어로 만들어 갈까? 두 가지 지침을 제시하고 싶다. 첫 번째로 크리스천도 인터넷 사회에 참여하고 있고 그 자유를 누려야 한다. 크리스천이 현대 의학을 거부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인터넷의 자유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인터넷도 다른 모든 과학기술의 산물처럼 일반은총을 통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사이버 세계에서 적극적일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의 신앙과 삶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크리스천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인터넷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판례는 좋은 지침이 된다. 1998년 미국 대법원은 오하이오 주 웨스트레이크 고등학교와 그 학교 학생인 오브라이언 사이의 소송에서 오브라이언의 손을 들어 주었다. 오브라이언은 자신을 부당하게 대했다고 생각한 음악교사의 사진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발하기를 싫어하는 비만의 중년 남자" 라고 써넣었다. 이에 맞서 학교 측은 오브라이언을 정학시키고 홈페이지를 폐쇄하도록 명령했다. 이

재판에서 미국 대법원은 약간의 제한을 인정한 다음, 인터넷의 자유에 손을 들어 주었다. 학교 측은 학교 홈페이지나 출판물, 학교 시설 안에서만 발생하는 저속한 표현을 규제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반면에 학생들은 학교 밖이나 자유로운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이 판결을 통해 인터넷 공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며 설득을 통해서만 규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것이다.

‘황금률’ 은 인터넷에서도 진리이다

위의 판례도 전제하고 있듯이 인터넷에서 자유의 인정이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강제에 의하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윤리와 예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두 번째의 지침은 타인의 존중이라는 원칙이다. 인터넷에서 네티즌의 자유는 타인의 존중을 이미 포함한다. 그래서 사이버윤리학은 존중, 책임, 정의, 해악금지 등의 원칙을 통해 네티즌 상호간에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는데 관심이 있다. 인터넷에서 타인을 존중하려면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같은 최소한의 법안이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특히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은 누구보다도 인터넷에서 타인의 존중의 원칙을 실행해야 한다. 타인을 존중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덕목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 7:12)는 예수님의 황금률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진리이다.